

‘에베레스트 등정 1호’ 힐러리 경

이번엔 손자와 남극 원정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뉴질랜드의 등산가이자 탐험가 에드먼드 힐러리(87)경이 50년 만에 다시 남극 원정에 나선다.

힐러리는 뉴질랜드 원정대의 남극 ‘스콧 기지’ 과학 연구센터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8일 손자 데이비드 헤이먼과 함께 남극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남극 로스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에레부스산(山) 자락의 빙설 위의 ‘오두막’에서 숙박하면서 옛 추억을 되살린다.

힐러리는 1957년 1월 20일 뉴질랜드의 남극 횡단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의 로스(Ross)섬에 도착해 진초기지를 설치했다.

힐러리는 뉴질랜드 헬렌지와의 회견에서 에레부스산의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고 “맥도 스운드를 가로지르는 산을 바라보면서 남극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다. 그곳은 정말 장관”이라고 말했다. 힐러리는 지난 1953년 네팔인 셰르파 텐징과 함께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 기록을 세웠으며 1957년에는 뉴질랜드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에 원정, ‘스콧 기지’를 설치했다.

그는 1958년 1월에 개조한 트랙터를 타고 다시 남극 원정에 나서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팔렌 스콧 이후 최초 남극 원정 기록을 수립했다. 로버트 팔렌은 1911년 남극 원정을 끝내고 귀국하던 중 사망했다.



■광주·전남 언론인회 신임 최 승 호 회장

“경륜 살려 언론 위상 재확립”

“비록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단순한 친목단체에 머물지 않고 언론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곳곳하게 언론 외길을 걸어온 최승호(71) 전 광주일보 사장이 18일 광주·전남언론인회장에 선출됐다. 지난 1974년 결성된 언론인 동우회인 ‘청령회’를 모태로 출범한 광주·전남언론인회는 최근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다. 현재 광주·전남 언론사 전직 간부 등 언론계 원로 10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 외길’ 회원 106명 활동

“광주·전남언론인회가 출범 33년 만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새 출발한 것은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과 공익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언론계 대표적인 단체인 관훈클럽처럼 언론학적, 현직 언론인, 시민 등에게도 폭넓게 문호를 개방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생각입니다.”

그는 광주·전남 언론계를 이끌었던 기자들이 참여한 만큼 이들의 경륜이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현역 시절 신문, 방송,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회원들의 경륜은 지역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이 앞으로 서남해안 개발, 광주

문화중심 도시조성 사업 등에 관련한 세미나와 토론회에 활발하게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언론사들이 많지만 경제위축 등 사회적 여건 때문에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그는 “언론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후배들을 격려하고 건전한 언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번 신문, 방송, 통신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우수언론인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현역 언론인에 문호 개방할 터

“후배 언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것은 선배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는 후배들과 긴밀한 유대를 갖기 위해 광주·전남 언론인회에 논설위원 이상 현역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

홍콩·대만의 최고 감부 누굴까

리카싱 220억弗...부동의 1위



홍콩과 대만 최고 부자는? 포브스는 매년 발표하는 부호순위에서 리카싱이 홍콩과 대만에서 제1의 부호라고 소개하고 지난 1년 사이에 추정 재산이 188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8세의 리카싱은 경제잡지들이 매기는 중화권 부호 순위에서 거의 빠짐없이 1위를 차지해왔는데 작년에는 중국 본토의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재산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몇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리카싱은 이 같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포브스는 홍콩과 대만의 부호들이 대부분 본토에 투자를 하고 있어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가격 상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이 대 중국 투자와 ‘본토와의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후광효과’로 부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과 대만의 부호 40인의 재산은 총 1천540억달러로 지난 1년 사이에 280억달러가 늘어났다.

광주전남언론인회 새 회장에 최승호 前 광주일보 사장

최승호(71) 전 광주일보 사장이 광주·전남 전직 언론인들의 친목단체인 광주전남언론인회를 이끌게 됐다.

최 사장은 18일 광주 한 음식점에서 열린 2007년 광주전남언론인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됐다. 최 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또 부회장으로서는 광주일보 주필과 광남일보 사장을 역임한 신용호 씨와 광남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

원자씨를 선임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지난 4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친 광주전남언론인회는 공익사업으로 의연을 확장하는 한편 언론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수언론인 선발, 표창 ▲지역사회 발전 참여 등 사업을 추진한다.

“살아나’ 운동 펼쳐 생명·평화 실현”

〈살림·이웃·나눔〉

김현 신임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장

“민중화의 성지이자 원불교의 성지(영광)인 광주·전남교구로 부임하게 돼 영광스럽습니다.”

신임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에 임명된 김현(60) 교구장은 “광주는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확성지절을 보냈던



곳이어서 더 감회가 새롭다”며 부임 소감을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공동 원불교 광교당 2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교구장은 광주

일교(39회)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에서 원불교학을 공부했다. 김 교구장은 “원기 100년을 8년 가량 앞두고 있는 만큼 문화와 영향력을 키워 원불교가 지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원광대학교 재직 시절부터 펼쳐온 ‘살아나’ 운동을 사회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살아나’ 운동이란 ‘살림·이웃·나눔’의 줄임말로, 생명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다.

/정성필기자 camus@

‘2006 지방행정혁신평가’ 영암군 大賞 수상



김일태 영암군수(사진 왼쪽)가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06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영암군은 대상 수상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5억원을 받게 됐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추상미 “올 가을엔 결혼할거야” 이석준

영화 배우 추상미와 뮤지컬 스타 이석준이 결혼한다. 추상미와 이석준은 지난 17일 한 방송사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 “올 가을쯤 결혼할 생각”이라고 깜짝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추상미의 첫 뮤지컬 데뷔작

‘짧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진 뒤 사랑을 키워왔고, 지난 4일 이석준이 뮤지컬 무대에서 공개 프러포즈를 해 화제가 됐다. 추상미는 “이석준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올 가을께 결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추상미의 첫 뮤지컬 데뷔작



종합격투기 프라이드FC 헤비급 챔피언 표도르가 18일 오전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원을 방문,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얼음 황제’ 표도르 봉사활동도 최고!

어린이 환아들과 즐거운 한때

링 위에서는 냉혹할 정도로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 ‘얼음황제’ 표도르 에벨리아넨코(31·러시아)가 친근한 옆집 아저씨로 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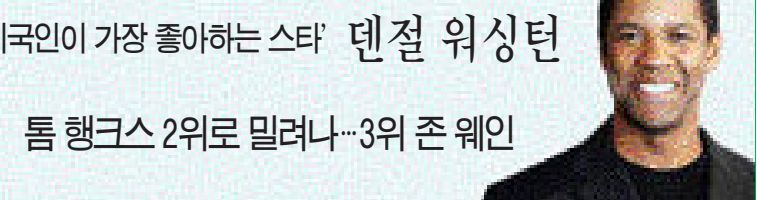
20일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07 MFC 코리아대회’ 시범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한 표도르는 18일 오전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어린이 병동을 찾았다.

평소 어린이들을 좋아했던 표도르가 한국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대한삼보연맹에 요청하면서 이번

방문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표도르는 약 1시간 동안 어린이 암 병동과 일반병동에 머물면서 입원중인 어린이 60여 명에게 자신의 포스터와 사인, 동물 모양의 모자, MFC 대회 입장권 등을 선물하고 단체사진도 함께 찍었다.

어린이 환자들은 텔레비전에서 본 듯한 유명 격투기 선수가 신기한 듯 어깨에 매달리기도 하는 등 여러광을 부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삼성서울병원 서동면 홍보팀장은 “표도르가 격투기 선수라고 하지만 무척 선하고 어린 이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 덴절 워싱턴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는 누가일까. 여론조사 전문 해리스 인터랙티브 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를 뽑는 설문조사 결과, 워싱턴이 지난 2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톰 행크스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천147명의 미국 성인들이 참여했다.

덴절 워싱턴은 2005년도 순위에서는 10위에 들지 못했으나 2006년 순위에서 1위에 등극했다.

톰 행크스는 이번에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으며 영원한 서부의 사나이 존 웨인이 지난해에 이어 3위 자리를 지켰다.

또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지난해

6위에서 4위로 두 계단 뛰어올랐다. 윌 스미스와 줄리아 로버츠는 공동 5위, 조니 뎁과 멜 깁슨이 공동 7위에 올랐으며, 9~10위는 조지 클루니와 해리스 포드가 각각 차지했다.

줄리아 로버츠는 여배우로서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으며 지난해 3위였던 해리스 포드는 10위로 떨어져 무려 7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포드가 5위권 밖으로 밀린 것은 지난 9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남자 응답자 사이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1위로 나왔고, 여성 응답자 사이에서는 줄리아 로버츠가 1위를 차지했다.

조니 뎁은 18세와 20세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고, 30세에서 41세 그룹에서는 톰 행크스가 최고 인기를 누렸다.

덴절 워싱턴은 지난해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최수영(갤러리 인테리어 대표) 씨 장남 원(전남대의대 수련의)군 김수현(농협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씨 장녀 가연(전남대의대 수련의)양=20일(토) 낮 12시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박성규씨 장남 철호(남도일보 기자)군 유영주씨 막내 은아양=20일(토)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3층 그랜드특실.

▲나만성(광주시 도시공사 건설본부장)씨 차남 강인군 정동수씨 장녀 애린양=20일(토) 오후 1시30분 에블루전세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홀.

▲염재열씨 장남 상원(서울대병원 의사)군 이기호(충신성규형 대표이사)씨 장녀 숙정양=21일(일)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일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후 2시~오후 5시 사무실 223-210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동창·동문회

▲일교 57회 동창회(회장 이찬범) 모임=19일(금) 오후 7시 풍네프라우스. 952-0088

▲광주 남중(무진중) 21회 동창회(회장 오세중) 월례회=19일(금) 오후 7시 무진장 해물탕. 375-3331.

▲광상 32회(일지모) 동창회 모임=19일(금) 오후 8시 다도해호텔. 011-9609-0055

▲복성중 제 19회 동창회(회장 김한주) 월례회=19일(금) 오후 6시 사랑채. 673-4966

▲재광 문태 중·고 동문회(회장 송중문) 정기총회=19일(금) 오후 6시30분 경북공예빌딩 4층. 011-

603-5604 ▲장흥 관산중 29회 동창회 모임=20일(토) 오후 6시 임마랑뷔페. 010-4629-6507

▲신안 도초초교 제 3회 동창회 모임=20일(토) 오후 7시 소미현 흑두부. 371-1188

▲전남여고 44회 동창회(회장 정행) 모임=20일(토) 오후 6시 이화웨딩게을. 016-644-4470

▲재광 무안북중 19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정기회=20일(토) 오후 7시 광주수산. 511-5059

종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여성이화회(회장 이보희) 월례회=22일(월) 오전 11시 광주·전남지원 회의실. 225-5631

향우회

▲재광 복내향우회(회장 이상재) 정기총회=20일(토) 오후 5시 콜럼버스웨딩홀. 011-666-7689

모집

▲조선대 평생교육원 시낭송 교육지도자과정모집=평생특기 교육 및 각종문화행사 출연등 취미활동 지원. 문의 016-629-3932

▲충신대 사회교육원 국제멀티테라피 교육센터 수강생 모집=중국 북경중의약대 단기연수 및 국가자격증코스. 문의 02-591-0745

▲8mm 영화 시나리오(드라마 포함) 스테디그룹 참가자 모집=20~30대로, 공동 창작 모임에 관심있는 자. 010-6620-7179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우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무료. 018-610-3360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일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

0289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홀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부음

▲정대성씨 별세 정환·승인·세희씨 부친상=발인 20일(토) 송정장례식장 201호. 941-7102

▲이경순씨 별세 박태식·규식·향식·성숙·영희씨 모친상 이효진·김길수씨 빙모상=발인 20일(토)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

가족처럼 따뜻한 정성으로... 알귀빈장례식장 광안구 우신동 80m 도로변 ☎(062)943-4444